

가네보 합섬 - 섬유시장의 뉴 프론티어 확대

일본의 가네보 합섬은 1999년 4월에 발족한 개발추진실이 중심이 되어 신규 섬유시장에 있어서의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분야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개발추진실이 발족한 당시에는 연간 약 130억엔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기존조직의 사업분야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영업을 개시하여, 1999년도 하반기에는 약 15억엔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다음 해인 2000년도에는 연간 73억엔의 실적을 올렸다. 현 상태에서는 전사적인 판매고의 20여%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도에는 전판매고의 45%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그 동안 개발해온 사업은 헬스 케어(health-care)에 관한 이불용 솜의 소취·제균·흡수 아크릴 「비오세프」와, 환경문제에 도움을 주는 에코 케어(eco-care)에 관한 염화비닐 대체품인 A-PET시트, 그리고 뉴 미디어(new media) 등에 관한 레이저 프린터 제전(除電) 브러시(brush)용 도전(導電)섬유 「벨트론」이나, 광(光) 파이버용 초흡수섬유 「벨 오아시스」와 같은 기존 상권(商權)과는 다른 용도·고객을 개척하고 있다. 그간의 조이율(粗利率)은 30% 이상을 목표로 해 왔는데, 실적은 약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일부 상권을 다른 영업조직으로 이관하고 나서 판매고는 108억엔을 목표로 하며, 이 단계에서 판매고 비율은 약 30%정도가 될 것이며, 2005년도에는 45%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헬스 케어, 에코 케어, 뉴 미디어의 다음가는 제4의 주력사업으로서 최종제품의 판매를 늘려나가려고 하며, 이미 인터넷의 「낙천시장(樂天市場)」으로 소취제균타월 「벨부케」나 이불건조 매트(mat) 「쾌면(快眠)드라이」를 판매 하고 있으며,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용 그랜드 골프웨어 「E골프」도 골프협회를 통하여 회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뉴 프론티어 분야에서 판매가 확대되면서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의 소재별 영업조직을 시장별·용도별로 재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장의 가동에 대한 책임관계로 소재별 중점분야에 따른 제조와 판매와의 관계가 크게 발전하면 새로운 밝은 전망이 보이게 될 것이다.